

●연중 제 15주일 강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제나 레위인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죽어 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친 그들의 행위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사제와 레위인들의 이기심을 비난하지만 정작 실생활은 사제나 레위인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싶어 하고, 홀몸노인을 돕는다든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빠듯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빈첸시오 회원이나 사회복지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돕기 단체들은 매달 회원들이 내는 수 천원, 수 만원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배움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은 우리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던지 둘 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깨지고 터졌는가 하면 심한 피멍이 들어 물결이 말이 아니게 됐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흠뻏던 상처는 원상 복구가 돼 아물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주고받았던 거친 말들은 하나도 잊혀 지지 않고 그대로 다 기억됐습니다. 잊혀 지기는 커녕 독기어린 말들은 안에서 웅어리가 돼 시간이 지날수록 복수심으로 자라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터지고 부러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때 주고받은 말을 통한 상처는 복수심으로 자라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비난의 말입니다.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한 순간에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한 순간에 쓰러뜨려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웃 사랑 실천에 있어서 핵심 중 하나가 언어 사용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밤길에 무엇이 제일 무서우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또 같은 사람들에게 밤길에 무엇이 제일 반갑냐고 물으면 똑같이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강도를 맞은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요 제일 고마운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서로를 도우며 살 때 가능해집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희망을 주는 말들이 이웃 사랑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양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성당주임)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요?
당신이 갖고 있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따스한 마음이 배어 나오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윽한 장미의 향기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려고
또는 자신의 몸을 향기롭게 하려고 향수를
뿌립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서본 사람만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영혼의 향기가
고난 중에 발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향기도
참 그윽하고 따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를 맡게 하는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만들어 주는 책 중에서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

○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오니
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 엄위하신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다.

●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지없이 엄위하신 아버지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사람을 구원하시려, 몸소 사람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품을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 죽음의 가시를 쳐보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며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당신 종들
저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저희도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친교안내
공사 관계로 친교는 공사 완료시까지 없습니다.

●7/8월 구역모임
공식적인 구역 모임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친교(야유회 등)를 도모하는 모임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4구역 모임(야유회)
▶일시:7월 24일(화) 오후 5시
▶장소: Mohawk Park

●바뇌기도회 :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이동기 형제 자택

●울뜨레아 야유회
▶일시: 8월 첫 주 / 장소: 추후 발표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서부공소인터넷 클럽 '신부님의 성서문답' 개설
'성서 100주간' 공부 중 궁금한 점을 모아 본당 신부님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참고서 형식의 알찬 코너입니다. 현재 많은 문답이 올라와 성서를 알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클럽 가입은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여성 꾸르실료주말 참가신청접수
▶마감: 9월 초 / 문의: 김현태(요셉)간사

● 통신교리 모집 안내 (5차)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선교부장 (박재영 바오로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여름 미사 복장
미사에 참석할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는 삼가 해 주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석합시다.

● 2007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일시: 2007년 8월 20일 11: 30
장소: South Brook Golf Club
회비: \$70
본당과 공소의 단합을 위해 본당 골프시합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남는 이익금은 본당 친교실 공사 상환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 성서대학
일 시: 7월23(월)~7월27(금) 오후7시~10시
주 제: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강 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장 소: 예수 성심 성당
참가비: \$50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2007-28 연중 제 15주일 2007. 7. 15.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레 해 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화 답 송 |없는 이들과 주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은 살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웁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6) 사랑의 송가
봉 헌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할 때
성 체	(504) 우리와 함께 주여
퇴 장	(4) 찬양하라

독 서	
7월 15일	노동원 노성은
7월 22일	이 민 이활란
7월 29일	장명길 장용경
8월 5일	이상재 이향숙

봉 헌	
7월 15일	정경래 정문진
7월 22일	노동원 노성은
7월 29일	이민 이활란
8월 5일	장명길 장용경

2007년 7월 8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97.25
성전건립:	\$ 50.00
교무금 :	\$ 475.00
Total:	<u>\$1222.25</u>